

쌀 대신 밀가루 ... 미안합니다

북한 취약 계층에 밀가루 지원 금강산 신계사서 남북공동법회

“이번 밀가루 지원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신계사는 앞으로도 누구나 기도하고 될 수 있는 도량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10월 12~13일 북한을 방문해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위한 밀가루 100톤을 전달하고, 신계사 복원 4주년 기념 남북공동법회를 개최했다.

민추본은 12일 임진각에서 ‘북한 수해지원 밀가루 100톤 환송식’을 가졌다. 북한은 올해 발생한 수해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추본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의 기금을 통해 밀가루를 마련했다.

밀가루 지원을 위한 방북단에는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해일 스님, 사회국장 묘장 스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개성 봉동역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에 밀가루를 인도했다.

이번에 지원된 밀가루 100톤은 평안북도 함산군지구 함양탁아소, 함양 유치원, 로현 유치원, 함양 소

학교 등에 전달돼 취약계층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하는 조물련으로부터 분배 계획서를 전달받아, 밀가루의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민추본은 지원된 밀가루의 정확한 전달 여부를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된 밀가루는 이웃 종교의 지원량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민추본이 밀가루 100톤을 전달하던 날,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밀가루 200톤을 북측에 지원했다. 천주교는 서울대교구가 전달한 밀가루는 평안남도 안주지구 등 14개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등에 전달된다.

10일 열린 민추본 간담회에서 자승과 해일 결사 추진본부 사무총장 해일 스님은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일 스님은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후원회나 모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은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불교계 타 종단과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추본은 또 13일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해 ‘신계사 복원 4주년 기념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가운데)과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해일 스님(사진 왼쪽), 사회국장 묘장 스님(사진 오른쪽)이 방북에 앞서 대북 지원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는 남북대표의 연설과 남북공동발원문이 낭독됐다.

이날 법회에는 지홍 스님을 비롯해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해일 스님, 사회국장 묘장 스님, 민추본 이사 해자 스님, 결사추진본부 위원 심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리규룡 조선불교도연맹 서기장, 류인명·리영호 스님 등이 함께했다.

지홍 스님은 봉행사에서 “신계사 복원발사는 통일 민족사에 길이 남을 불교도들의 큰 걸음이자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남북공동법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자승 스님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불교간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대산 직원 등 우리측 인원 모두가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초 보다 방북단 규모가 축소됐다. 더구나 통일부는 신계사 합동법회를 위한 조계종의 방북을 하루 전에 불허했다가 허용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민추본도 신계사 합동 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의 행정을 질타했다.

지홍 스님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42개 사찰 30명 스님 다시 살려내라

정대·월주 스님 등 원로 피해 및 명예회복 신고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10·27 법난 피해 신고 및 명예회복을 신청했다.

월주 스님의 상좌 화평 스님은 10월 12일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사위원회(단장 최동식)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10·27 법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당시 신적적 고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23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위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스님으로서는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종단의 권위와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월주 스님은 신청에 앞서 “10·27법난은 단순한 종교탄압사건이 아니라 무법천지에서 있을 수 있

는 인권유린이다. 1700년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해 온 조계종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고 종단의 명예와 승단의 권위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10·27법난의 진상은 반드시 재규명돼야 하며 국가의 과도 진정성 있게 다시 이뤄져야 한다.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피해자 신청을 한다. 정부와 불교가 진정으로 화해해 정교분리와 국민통합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10·27법난 관련법은 당시의 상이 현실까지 남아 있어야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주 스님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이를 갖고 있어야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몰상식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체적 후유증이 없을 경우 조사관이 정신적 충격을 확인하

기 위해 피해자 스님들에게 당시 상황을 묻는 것은 스님들을 두 번 욕보이는 행위라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계종 총무원도 10·27법난 후유증 등으로 입적한 스님 29명과 조계사 등 대부분의 교구본사가 포함된 42개 사찰에 대한 종단 차원의 피해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대 스님의 피해 신청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명의로 제출했다.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실무위원회에서 스님과 사찰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분회적적인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명예회복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피해 여부 확정까지는 3~4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범 기자

전통사찰 방재, 이제는 예측하는 시대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이 구축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는 10월 12일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업체 두 곳을 종단 인증업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인증 받은

업체는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전문업체인 새틴정보통신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업체인 파스텍이다.

전통사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지속적으로 전통사찰의 방재를 비롯한 사찰 방재 전문 기술력을 축적해 전통사찰 방재를 체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종단 표준의례 한글 ‘반야심경’ 봉정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의례의 한글화를 위한 ‘종단 표준의례 한글<반야심경> 봉정식’을 10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의례위원장 인목 스님은 “한글본을 통해 반야심경의 깊은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글<반야심경>을 시작으로 의례 한글화의 물꼬를 틀 것이다”고 말했다. 인목 스님은 한글<반야심경>본을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께 올리고 사부대중과 함께 한글<반야심경>을 독송했다.

박기범 기자

아름다운동행 2기 구성 ... 새출발

대표 모금기관 청사진 제시

불교계 최초 모금기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의 제2기 이사진이 출범했다.

동행은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이사진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이사진은 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사회부장 해경 스님, 구공사 회주 정우 스님, 도선사 주지 해자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중빈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동행은 “2기 이사진들은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사회 대표적 모금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2008년 9월 30일 출범 이후 2008년 2억 3150만원, 2009년 11억 579만원, 2010년 29억3195만원, 2011년 9월 말 현재 42억 5085만원 등 총 85억 2011만원을 모금해 저소득층 지원, 국제구호 대북지원 사회복지 및 NGO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장적·덕조 스님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에서 장적 스님과 덕조 스님이 10월 10일 무투표 당선됐다. 한편, ‘구축계 미수지’를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후보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법일 스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았다.

조동섭 기자

동방대학원대 정 총장 무혐의 판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동방불교대학원대학 정상욱 총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정상욱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10월 7일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대한불교 반야종 창종 대법회



초대종정 회 범 대중사

원로의원 도 관 보 성 성 철

총회회장 청명 총회부회장 해관 총무원장 지법 총무부장 용산 재무부장 성담 감찰부장 수명 포교부장 백연화

귀의 심보하옵고

본 종단은 석가모니불을 교구로 봉체하고 보조조사께서 창수하신 수신대법의 돈오점수 선교회통 정혜쌍수를 중지로 삼아 불법을 널리 홍포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고자 대한불교 반야종 종단 창종을 선포합니다.

이에 창종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전국 대덕 스님 및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합장

근 일시 : 불기 2555(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10시
근 장소 :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29-1 동아사
근 문의 : TEL 054)742-2633 / 010-3519-2633
FAX 054)776-2227

□ 총무원 :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29-1